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 연구

-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정현*

〈차 례〉

1. 머리말
2. 작중 군담의 존재양상
3. 전작과의 비교를 통해 본 작중 군담의 특징
4. 작중 군담의 소설사적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에 주목하였다. 그 존재양상과 특징을 전작·원작에 해당하는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과의 비교 하에서 고찰한 후, 문학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은 30권의 낙선재본 기준으로 2권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였으며, 타 작품들과 구분할 만한 특이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전작과의 연속성을 질게 드러내고 있었다. 아울러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독자가 세 작품을 연속하여 읽을 바를 고려한 정황도 확인된 바, 군담 서술의 문제를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작품 간 군담의 비교 검토를 통해,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전작의 서사를 재서술하는 과정에서 군담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장·변이시키면서 전작에서 미진했던 주요 갈등을 보완하는 점, 본작 4회에 전작까지 포함하면 도합 19회에 달하는 군담이 적대자형 인물 형상과 대결 방식 등의 변주를 통해 상호간 차별화를 이룬 점, 엄문(嚴門) 직계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약상은 축약하거나 생략하는 반면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활약상은 구체화하면서 일문(一門) 중심의 서술이 약화된 점을 확인하였다.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센터 강사

이상의 지점들로 미루어 보아, <엄씨효문청행록>을 포함한 <명주보월빙> 이하 세 작품의 군담은 세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어읽기’와 군담 특유의 흥미 제고를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에서 군담은 충분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었지만, 독자의 기호와 창작 방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거나 흥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음을 유추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중 군담에서 세 작품 간의 상호관계성 및 독자의 ‘이어읽기’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엿보이는 점과 일문 중심의 서술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씨효문청행록>은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을 잇는 삼부작 연작소설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밝혔다.

주제어 <엄씨효문청행록>, 군담,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 이어읽기, 가문

1. 머리말

본고는 국문장편소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軍談)¹⁾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엄씨효문청행록>은 작자의 창작 의도, 주요 소재와 시대배경, 인물과 사건 등 제반 측면에서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과 밀접한 관계망을 지닌 작품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엄씨효문청행록>을 이 두 작품과 한데 묶어 삼부작(三部作)의 연작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혹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으며 ‘파생작’²⁾에 가까운 작품으로 구분하여 보

-
- 1) 고전소설의 군담은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차원의 집단적 가치를 짊어진 영웅의 전쟁 중 활약을 그리는 소설 속 서사의 구성 단위”(서정현, 「조선 후기 장편소설 속 군담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0쪽)로 정의할 수 있다.
 - 2) 선행 연구에서 이민주는 ‘한글장편소설 파생작’의 개념에 대해 “원작의 서사요소를 차용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독자의 관점에서 원작의 서사세계를 반박, 변형, 확장, 보완하는 작품”(이민주, 「한글장편소설의 파생작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23, 34쪽)으로 정의하였으며, “독자의 관점에서 원작의 서사세계에 문제를 제기”(28쪽)하

기도 한다.³⁾

<엄씨효문청행록>에 관한 연구들은 개별 작품론의 영역에서는 주로 계 후갈등 및 그에 얽힌 사대부 벌열기문의 현실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⁴⁾ 더불어 적자·계자와 관련된 모자관계의 문제를 다루거나,⁵⁾ 작중 엄창·엄영 형제가 보이는 형제 간 우애의 문제와 관련한 아동의 서사를 다루는 연구,⁶⁾ 양녀(養女) 화소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⁷⁾ 등이 이루어졌다.

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또한 <엄씨효문청행록>을 연작이 아닌 파생작으로 분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주제 비평형 파생작’으로 보았다(33쪽).

- 3) <엄씨효문청행록>을 파생작으로 보는 견해들은, 대체로 윤·하·정 삼문(三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앞의 두 작품과 달리 엄문(嚴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데 주목한다. 반면 삼부작의 연작으로 보는 견해들은 그러한 기문의 변동이 있더라도, 전작들에 연원을 둘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동질성과 연계성을 보인다는 데 주목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사 검토와 정리는 유인선(「<명주보월빙> 연작 연구-운명 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21, 14쪽 각주 48)과 김은일(「<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방식」,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113-115쪽)의 정리를 참조할 수 있다.
- 4) 박영희, 「<엄씨효문청행록(嚴氏孝門淸行錄)>에 나타난 갈등양상(葛藤樣相)과 의미」, 『어문연구』 2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134-149쪽.
조광국, 「엄씨효문청행록(嚴氏孝門淸行錄)에 구현된 벌열가부장제(閹閹家父長制)」,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227-253쪽.
조광국, 「벌열소설(閹閹小說)의 효(孝) 구현(具現) 양상(樣相)에 대한 연구-벌열소설(閹閹小說) 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柳孝公善行錄)」, 「엄씨효문청행록(嚴氏孝門淸行錄)」,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35-161쪽.
이현주,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한민족어문학회, 2012, 451-474쪽.
- 5) 김서윤,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275-309쪽.
- 6)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아동 서사와 애착 관계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5, 국문학회, 2022, 183-224쪽.
- 7) 조혜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양녀(養女) 화소의 양상과 의미 - 「양원문직절기」와 「엄씨효문청행록」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60,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77-100쪽.

한편으로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과의 관계성 문제에 주목하거나, 상호간의 연작관계를 전제하면서 보다 넓은 층위에서 해당 작품군이 갖는 특징과 그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우선 이 3편의 장편소설을 연작관계로 보고 그 구체적 당위를 규명하는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⁸⁾ 나아가 삼부작에 나타난 요괴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⁹⁾ <윤하정삼문취록>과 <엄씨효문청행록>이 공유하는 동오국의 형상을 살피는 논의¹⁰⁾ 또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여러 선행 연구들의 성과물이 축적되면서, <엄씨효문청행록> 내·외의 제반 요소들에 대한 폭넓으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 군담에 대해 별도로 주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은 총 4회에 걸쳐 나타나며, 전체 30권으로 이루어진 낙선재본 기준으로 2권 정도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
- 8) 최길용은 <엄씨효문청행록>이 작가가 의식적인 연작의도를 갖고 전편에 연원을 두어 이야기를 새롭게 그려가는 점을 들어 연작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1984, 1-273쪽). 이후 중심 가문의 변천이 있으므로 연작으로 묶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었으나(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89, 1-228쪽), 이후 견해를 다시 수정하여 중심가문의 이동이 있음에도 연작으로 묶이는 작품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중심가문의 이동이 있는 연작’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엄씨효문청행록>」, 우퀘제 외,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1156-1158쪽). 유현주(「<엄씨효문청행록>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9, 1-110쪽)의 경우 ‘방계형 연작’의 개념으로 3부작의 연작관계를 규정하여, 중심가문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은일(「<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방식」,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111-143쪽)은 세 작품의 통합체적인 의미를 글쓰기 방식의 하나인 비교서술을 통해 밝히고자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이 연작이 균질적인 서사나 일관된 서술자 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되,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서사를 펼쳐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9) 이후남, 「요괴 서사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명주보월빙> 3부작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285-297쪽.
- 10) 김은일, 「<윤하정삼문취록>과 <엄씨효문청행록>에 나타난 동오국 형상화의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57, 한국고소설학회, 2024, 109-146쪽.

작품의 핵심인 계후갈등을 비롯하여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와는 다소 거리를 두는 형태이되, 화희경-엄난혜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거나, 엄백경의 장자 엄표로 인한 가내의 분란을 마무리하고 그를 처단하는 등 국면의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군담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인물 형상과 군사적 대결 방식을 망라하면서 중국인-이민족 적대자의 결합이 이루어지거나 녹림(綠林) 출신의 반란군이 주요 적대자로 설정되는 등, 타 작품에서 비교적 드문 특이점을 보인다.

한편으로 〈엄씨효문청행록〉 군담은 연작 혹은 파생작으로서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망을 보여주기도 한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나타났던 동오국 관련 서사를 재서술하면서 군담 또한 반복되는데, 그 내용과 분량이 훨씬 방대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점, 엄문(嚴門)의 인물 대신 혼인관계로 맺어진 윤문(尹門)의 인물인 윤창린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점, 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사건 전개 방식이 일정한 변개를 거치는 점 등이 두드러진다.

전술하였듯이 선행 연구에서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을 별도로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대신 전작·원작에 해당하는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의 군담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다.¹¹⁾ 해당 연구에서는 두 연작의 군담이 도합 15회나 등장할 만큼 방대한 서술 분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작으로서의 서사적 지속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군담 간 상호 차별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서술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까지 포괄하여 재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 또한 전작·원작에 해당하는 두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작중 군담은 〈엄씨효문청행록〉 한 작품만이 아니라, 세 작품을 통틀어 보았을 때도 적

11) 서정현,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 연작의 군담 연구」, 『우리말글』 101, 우리말글학회, 2024, 173-218쪽.

대자형 인물의 형상과 전반적인 서사 전개, 군사적 대결의 방식 등에서 각 군담마다 서로 구분할 만한 특성을 보여준다. 뒤의 3장에서 재론할 바이되,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 가운데 독립 출신이자 황소(黃巢)의 후손인 황 후소의 독특한 내력이라든가, 동오국과 서번국을 진압하는 과정 중 무예(武藝)의 영역에서는 대원수인 윤창린 대신 수하 장수들이 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장면 등은 전작의 다른 군담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윤하정삼문취록>에서 미진하였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가문의 직계인 엄백현·엄창보다 화회경·윤창린 등 엄문과 인척관계이지만 타 가문에 속한 인물들의 군담에 초점을 맞추는 기이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들은 <엄씨효문청행록>을 포함한 세 작품의 군담이 지니는 특징적인 측면인 동시에,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 작품 간 '이어읽기'를 주의 깊게 고려하였을 가능성을 짐치게 한다. 물론 이를 아직 논란이 있는 연작 혹은 파생작의 개념 범주 문제와 연결지를 경우, 군담에만 집중하는 본고의 방향성 하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짓기 어렵다. 그러나 세 작품의 관계성을 재론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할 만한 요소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선행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던 군담 서술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에 따라, 본고에서는 <엄씨효문청행록>에 등장하는 군담의 전반적 존재양상과 서술 방식 등 제반 측면을, 전작·원작에 해당하는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과의 비교 하에서 고찰한 후, 그 문학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작품의 군담으로서의 성격과 그것이 연작 혹은 파생작의 관계망 하에서 갖는 특수한 지점들을 밝히고, 조선 후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창작 기법이 확장 및 고도화되면서 보여준 새로운 일면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엄씨효문청행록> 속 군담

의 존재양상을 ‘작중 서사 속 성격과 기능’,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구도’, ‘군사적 대결의 유형과 서술 방식’의 세 층위로 나누어 분석한다.¹²⁾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전작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과 비교 검토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세 작품의 관계망과 연결지어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중 군담의 소설사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엄씨효문청행록〉의 두 이본 가운데 낙선재본 「엄씨효문청행록」을 저본으로 삼되, 필요한 경우 고려대본 「엄씨효문청행록」과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최길용의 교감본¹³⁾을 주요하게 참고하기로 한다.

2. 작중 군담의 존재양상

1) 작중 서사 속 성격과 기능

본질에서는 우선 〈엄씨효문청행록〉 군담의 경계, 등장 권수, 군사적 대결 장면 서술의 여부를 도표화하여 정리한다. 다음으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작중에서 배치 및 구조화되는지, 나아가 작품 내적으로 어떤 서사적 기능을 맡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은 작중에서 도합 4회 등장한다. 작품의 중심이 되는 엄부의 직계인 엄백현과 엄창, 그리고 혼사를 통해 인척관계로 맺어진 화희경과 윤창린 등의 인물들이, 중국 내·외에 걸쳐 일어나는 군사적 소요를 진압하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군담의 작중 존재양상은 다음 도표와 같이 정리된다.

12) 이는 서정현의 연구에서 〈명주보월빙〉 연작 군담을 분석하였던 기준을 동일하게 활용한 것이다(서정현(2024), 위 논문). 작품 간 연관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13) 최길용 교수, 『교감본 엄씨효문청행록』 1·2, 학교방, 2021.

〈표 1〉 〈엄씨효문청행록〉 군담

명칭	내용	등장 권수	장면서술
엄씨효문청행록-①	화회경이 섬서에서 일어난 황후소의 반란을 진압함.	5, 6	○
엄씨효문청행록-②	윤창린과 엄백현이 동오국 세자 엄표의 반란을 진압함.	16, 17	○
엄씨효문청행록-③	윤창린과 엄백현이 건융을 물리치고 서번국을 평정함.	16, 17	○
엄씨효문청행록-④	엄창이 유일을 물리치고 안남국을 평정함.	30	×

이상 4회의 군담 가운데, 엄씨효문청행록-②와 ③ 군담은 전작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이미 서술된 내용이기도 하다. ②와 ③ 군담은 동오왕 엄백경-동오세자 엄표로 이어지는 후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작중 갈등에 얽혀 있다. 작중에서 동오왕 엄백경은 세자 엄표의 패륜과 무능함을 경계하여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지 않는다. 이에 불만을 품은 엄표는 엄백경이 사망한 후, 원흥·봉암 등과 짜고 모략을 꾸며 왕위를 계승하는 한편 송나라 황실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는 황실에서 파견한 윤창린·엄백현의 정벌군에 의해 진압되고, 엄표와 그 일당들은 자결하거나 중국으로 압송되어 처형되는 결말을 맞는다. 이 서사는 전작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이미 중요하게 다루어진 바 있는데,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이를 다소의 변개를 가해 재서술한다. 군담의 내용 또한 그에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서도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재서술 과정에서 군담의 내용과 서술 분량을 한층 확장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등장인물 및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개가 나타난다.

그런데 작중 4회의 군담 가운데 ①, ②, ③ 군담은 군사적 대결 장면을 구체화하여 서술하는 반면, 마지막 ④ 군담에서는 전투의 경과만을 간략히 기술하면서 군담으로서의 구색만 겨우 맞추는 차이가 있다. 일전(一戰)에 대패하여 만군(萬軍)이 흩어지고 편갑(片甲)도 남지 않았다는 기술¹⁴⁾로

14) “일전의 티푼하고 지전의 만군이 잔파하여 편갑도 남지 아니니 혈유성천하고 격시여 산하니 음운이 참참하고 원벽이 처처하여 석즈의 계갈무휘 남만을 행복받고 도라을

간략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장편소설의 군담은 작중 서사를 구성하는 단위담과 단위담 사이, 혹은 단위담 내부의 전개 과정에서 매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서사적 휴지의 기능, 문제 해결의 기능, 음모의 심화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¹⁵⁾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 또한 이 분석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군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군담의 경우 출전한 화회경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영수옥을 처로, 영낭옥과 빙설 등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불고이취(不告而娶)를 저지르면서 엄난해와의 부부갈등이 한층 심화된다. 그런가 하면 ②, ③ 군담은 전술하였듯이 봉왕(封王)된 엄문 내부의 후계 문제, 그리고 가문의 일원이 반역죄를 저지름으로써 벌어지는 문제적 사건의 핵심 요소이자, 결국은 그 관련자들을 숙청하고 소요를 진정시키는 해결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④ 군담의 경우 동오국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문이 상실하였던 왕공후(王公侯)의 작위를 회복하는 수단이 된다. 한편 ③ 군담의 경우 이전의 ② 군담에서 엄표가 자결함으로써 엄문 내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고, 윤창린 및 윤문과 갈등 구도를 이루던 원흥·봉암 일당과의 악연을 해결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엄씨효문청행록>보다는 오히려 전작인 <윤하정삼문취록>과의 관계성이 더 짙은 내용이기도 하다.

2)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구도

고전소설 군담 속 인물의 구도는 군담을 이끄는 역할이며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주인공, 그리고 이러한 주인공과 대립하는 구도에 있으며 마땅히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그려지는 적대자로 양분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양

계 슈만갑군을 노슈의 못지름 갖더라.”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30권, 45쪽.

15)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단위담의 전개양상과 결합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7, 35쪽 및 187-188쪽.

본 구도 하에서 주인공과 적대자를 조력하는 입장에 있는 보조적인 성격의 인물들 또한 등장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군담의 인물 유형은 크게 주인공, 적대자, 조력자의 셋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¹⁶⁾ 그에 따라 <엄씨효문청행록> 군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상호간의 관계 구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엄씨효문청행록> 군담 속 인물

군담	주인공	적대자	조력자	
			주인공 측	적대자 측
엄씨효문청행록-①	·화회경	·황후소	·	·후호
엄씨효문청행록-②	·윤장린	·동오세자 엄표 ·봉암 ¹⁷⁾	·엄백현 ·송경 ¹⁸⁾ ·석경학	·원홍 ·여수정 ·여혜정
엄씨효문청행록-③	·윤장린	·서번왕 건읍 ·봉암	·엄백현 ·송경 ·석경학	·불여화 ·탈탈고 ·원홍 ·여수정 ·여혜정
엄씨효문청행록-④	·엄창	·안남왕 유일	·손철 ·위청	·서용 ·공손왕후

실제 역사를 치밀하게 반영하지 않은 형태의 고전소설 군담에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갈등 및 군사적 대결은 전형적인 양상을 띤다. 주인공 측이 종종 고전(苦戰)과 위기를 겪는 순간도 있으나, 결말에 이르러서는 항상 적대자가 패망하고 주인공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공식은 <엄씨효문청행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 전형성과 별개로 대결의 과정

16) 서정현(2019), 앞의 논문, 52-53쪽.

17) 봉암의 본래 성명은 ‘차순위’이다. 단 도호(道號)인 봉암으로 불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본고에서는 ‘봉암’으로 호칭한다.

18) 엄씨효문청행록-② 기준으로는 ‘송’씨로, 엄씨효문청행록-③ 기준으로는 ‘손’씨로 호칭된다. 본고에서는 엄씨효문청행록-② 기준으로 통일한다.

에서 주인공만이 아니라 적대자의 형상 또한 개성적이고 비중 있게 그려지면서, 군담 자체의 흥미를 돋우고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주인공 측 인물들의 면면에 주목해 보면, 앞의 1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대결 장면의 서술 여부, 군담의 주역 여부에 따라 엄문의 직계인 엄백현이나 엄창보다는 사위에 해당하는 화희경과 윤창린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이점이 보인다. 화희경은 몸소 대도(大刀)와 죽절편(竹節鞭)을 휘둘러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황후소와의 대결에서 거짓으로 부상당한 척하는 계락을 펼쳐 적을 일망타진하는 등 뛰어난 지략과 용의주도함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한편 윤창린의 경우 화희경과 달리 무인의 기질은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실제로 윤창린이 주역인 ②, ③ 군담에서 진행되는 무술 대결과 같은 개인의 용맹을 증시하는 대결 방식은, 수하 장수들인 송경과 석경학이 담당하고 있다. 대신 윤창린은 뛰어난 통솔력과 적의 아습을 예측하여 유인한 후 매복으로 포위섬멸하거나, 적군의 요술을 방지하고 깨트리거나 역으로 이용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지략과 병법, 도술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묘사된다.

적대자 측 인물들의 면면에 주목해 보면, 군담 외 서사에서도 가문 내 분란을 일으키는 반동인물로서 이미 등장한 경우와, 군담에 한정하여 등장하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

우선 군담 이전에도 이미 등장한 경우를 살펴보면, ②, ③ 군담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엄표, 원흥, 봉암, 여수정, 여혜정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엄표의 경우 엄백경을 비롯한 가문 내 인물들의 기대를 저버린 패륜아로서 엄문의 위기를 초래하는 중요인물이기는 하되, 군사적 능력을 비롯한 제반 측면에서 무능한 것으로 그려지기에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지는 군담 장면에서는 그 활약상이 뚜렷하지 않다.

원흥, 봉암, 여수정, 여혜정은 전작인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윤·하·정 삼문(三門)에서 벌어진 여러 혼사갈등을 중심으로 부각되었던 인물들

이다.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중국에서 벌였던 갖은 음모들이 탄로나 위기에 처하자 동오국으로 도망쳐 온 처지로서 작중에 처음 등장한다. 이들은 엄표를 꼬뜨겨 반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서번왕 견융을 미인계로 미혹하여 중국을 침공하게 만드는 등 ②, ③ 군담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여성인물들인 여수정과 여혜정은 견융의 후궁이 되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각각 봉암과 원홍을 정부(情夫)로 삼아 사통하는 등 이른바 악녀(惡女), 요녀(妖女)로서의 면모가 뚜렷하다. 전쟁 장면에서는 날씨를 바꾸거나 둔갑술을 부리는 등 여러 가지 요술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봉암의 활약이 부각된다.

다음으로 군담에 한정하여 등장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① 군담의 황후소, ③ 군담의 서번왕 견융, ④ 군담의 안남왕 유일의 들 수 있다. 황후소는 당(唐)나라 말엽의 실존인물인 황소(黃巢)의 후손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는 노림에서 세력을 쌓아 활동하다가 선조의 유지를 이어받아 새 황조(皇朝)를 열기 위해 섬서(陝西)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출신 배경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화희경에게 대패하여 세력을 거의 잃었음에도 사로잡히거나 전사(戰死)하는 대신 후일을 도모하며 토번(吐蕃)으로 도주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적대자들과는 다르다. 본래 황후소와 관련한 후속 서사가 본작 혹은 차기작에서 이어질 예정이었던 듯한데, 적어도 <엄씨효문청행록> 작중에서는 해당 군담 이후 황후소의 행적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다.

서번왕 견융은 여수정·여혜정의 미색을 앞세운 원홍과 봉암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송나라와 적대하는 인물이다. 남다른 담력과 용맹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원홍 일당의 흉계에 휘둘려 이용당하다가 끝내 죽음을 당하는 어리석음이 부각된다. 이 견융과 원홍 일당의 결합은 보통 고전소설 군담에서는 별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인-이민족 출신 적대자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안남왕 유일의 경우, 대결 장면의 생략으로 인해 황후소와 견융에 비하

면 적대자로서의 형상화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대신 작중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릇된 생각을 품었으나 결국 엄창에게 항복하고, 엄창의 교화(教化)를 받아 개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황후소, 건융 등의 다른 적대자형 인물들보다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3) 군사적 대결의 유형과 서술 방식

고전소설 속 군담의 핵심이자 독자적인 지점은 바로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에 벌어지는 군사적 대결이다. 이 군사적 대결의 유형 및 서술 방식은 완력이나 무술·무예 등 일신(一身)의 무력을 발휘하여 서로 대결하는 무술전, 각종 전략과 전술, 책략을 통해 서로 대결하는 병법전, 도술·요술과 같은 신이한 능력 혹은 물품을 활용해 서로 대결하는 도술전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¹⁹⁾ 이 기준을 〈엄씨효문청행록〉 군담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엄씨효문청행록〉 병법전

세부 유형	횟수	내용 요약
매복·기습 ²⁰⁾	3	·황후소가 송진을 염탐한 후 급습하지만, 화회경이 이를 간파하고 매복·포위하여 크게 승리함(엄씨효문청행록-①). ·화회경이 황후소의 군대가 빈 틈을 타 별동대로 황후소의 산채를 급습하여 불태움(엄씨효문청행록-①). ·윤창린이 건융의 야습을 예견하고 초인(草人)을 이용해 유인한 후 매복·포위하여 크게 승리함(엄씨효문청행록-③).
위항·위장·반간 ²¹⁾	1	·황후소가 민간 부녀자로 여장한 병졸을 보내어 송진을 탐지함(엄씨효문청행록-①).
교란 ²²⁾	1	·화회경이 양혈(羊血) 주머니를 준비하고 일부러 적장 후호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척하여 적의 방심과 공격을 유도함(엄씨효문청행록-①).

19) 서정현(2019), 앞의 논문, 56~57쪽.

20) 숨어 있다가 불시에 포위·공격하거나, 혹은 야습(夜襲)과 같이 상대방의 허를 찌러 공격하는 등의 책략·전법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21) 거짓으로 항복하거나, 본래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여 적군에 일시적으로 합류, 혹은

〈표 4〉 〈엄씨효문청행록〉 무솔전

세부 유형	횟수	내용 요약
일대일 대결 ²³⁾	1	·화회경이 황후소와 대결하여 4, 5합 만에 거짓으로 패해 달아나고, 적장 후호의 화살에 일부러 맞아 낙마함(엄씨효문청행록-①).
다대다 대결 ²⁴⁾	2	·송경과 석경학이 엄표, 봉암 등이 이끄는 반란군을 추격하여 싸우는 데, 용맹이 뛰어나 누구도 일합을 겨루지 못함(엄씨효문청행록-②). ·송경과 석경학이 서번 장수 불여화, 탈탈고와 오십여 합을 겨루지만 승부가 나지 않음(엄씨효문청행록-③).

〈표 5〉 〈엄씨효문청행록〉 도솔전

세부 유형	횟수	내용 요약
호풍환우·신령·요괴 소환 ²⁵⁾	4	·화회경이 풍백(風伯)을 불러 적의 추격을 방비함(엄씨효문청행록-①). ·봉암이 구름과 검은 안개, 신병귀졸(神兵鬼卒)을 불러내어 송군을 공격함(엄씨효문청행록-②). ·봉암이 검은 구름과 벼락, 우박을 불러 송군을 공격함(엄씨효문청행록-③). ·윤창린이 풍백을 불러 봉암의 요술을 깨트리고, 봉암이 불러내었던 검은 구름을 거꾸로 몰아쳐 서번군을 크게 물리침(엄씨효문청행록-③).
둔갑술 ²⁶⁾	3	·봉암이 단약으로 심이기, 여방, 여숙을 각각 엄표, 엄백진, 윤성린으로 둔갑시켜 송군 진영에 보내고, 그 사이 엄표 일당이 달아남(엄씨효문청행록-②). ·봉암의 무리가 송군의 추적을 피해 근두운을 타고 달아남((엄씨효문청행록-②). ·봉암이 창승(蒼蠅)으로 변신해 송군 진영을 염탐함(엄씨효문청행록-③).
신물·기물 사용 ²⁷⁾	1	·봉암이 부리는 요술을, 윤창린이 준비한 제요축사(除妖逐邪)의 부적과 양의 피로 깨트림(엄씨효문청행록-②).

포섭되어 내부에서부터 상대를 속이는 책략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22) 거짓으로 공격하는 체 하거나, 격장지계(激將之計)와 같은 심리전을 펼치는 등 적을 혼란에 빠트리는 경우이다.

23) 주인공과 적대자 측에 속하는 장수가 일대일로 대결하는 경우이다.

24) 주인공과 적대자 측에 속하는 복수의 장수가 동시에 대결하는 경우이다.

25) 바람과 비를 불러내는 등 기상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天災地變)을 일으키거나, 신령(神靈)·신장(神將), 용(龍), 귀신(鬼神), 요괴 등 초자연적인 존재를 소환하여 부리는 경우이다.

26) 짐승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로 변신하거나, 모습을 감추거나, 하늘을 날고 구름을 불러

이상으로 정리한 <엄씨효문청행록> 속 군담의 군사적 대결 유형은 도술전 유형이 가장 두드러지기는 하되, 무술전·병법전·도술전이 모두 나타나면서 군담별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 군담을 서술하는 작품들에서 종종 세 가지 유형을 고르게 드러내기보다는 일부 유형만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 바와 비교할 때, 본작의 군담은 서술 분량만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군담의 긴장감과 흥미를 살리는 데 충실하다.

그런데 작중에서는 위 도표처럼 비단 대결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전개 방식에서도 군담 각각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 예로 병법전 중 매복·기습 유형을 보면, ① 군담과 ③ 군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도 적군의 야습을 예견하고 일망타진하는 방식이어서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① 군담에서는 화회경이 전투 중 적장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적의 방심을 유도하였으며, 황후소의 군대가 야습해올 당시 별동대를 보내어 역으로 적군의 본진을 급습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③ 군담에서는 윤창린이 첫 접전을 벌인 직후 서번군의 야습을 바로 예견한 다음, 자신과 엄백현의 형상을 한 초인을 이용해 군중(軍中)으로 유인하는 책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적군이 야습하는 과정에서 먼저 송군(宋軍) 진영을 염탐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① 군담이 젊은 병졸을 여장(女裝)시켜 보내는 반면, ③ 군담에서는 봉암이 창승(蒼蠅)으로 변신하여 숨어드는 내용을 서술하면서 사전 염탐의 과정 또한 차별화된다.

또 다른 예로 도술전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② 군담과 ③ 군담에서 동일 인물인 봉암이 날씨를 조종하거나 신령·요괴를 부르는 등의 요술을 발휘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보인다. 봉암은 ② 군담에서 구름과 안개, 신병귀졸을 부렸지만,²⁷⁾ ③ 군담에서는 안개, 벼락과

타는 등의 능력을 보이는 경우이다.

27) 특수한 힘을 지닌 물건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경우이다.

우박을 불러낸다.²⁹⁾ 이에 대응하는 것은 모두 도술 능력을 지닌 윤창린의 몫인데, ② 군담에서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송경과 석경학 두 장수에게 맡긴 부적과 양의 피를 이용한다.³⁰⁾ 반면 ③ 군담에서는 본인이 직접 바람의 신 풍백(風伯)을 불러 명령하는 방식을 취한다.³¹⁾ 또한 ② 군담에서는 단순히 봉암의 요술을 깨트리는 데 그쳤지만, ③ 군담에서는 상대가 불러낸 검은 안개를 바람으로 휘몰아쳐 적군 진영을 혼란에 빠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들은 군사적 대결의 서술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까지 서로 일정하게 구분되는 독자적 성격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군담이 흔히 초래할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반복과 유형성을 탈피하고³²⁾ 독자의 흥미를 돋우고자 한 작자의 노력을 엿보게 한다.

28) “봉암 요인이 두어가지 요술노빠 명군을 업살코져 흐더니 문득 명 진중으로서 일즈 흥기를 두루치더니 맑은 바람이 니러나고 흥광이 가득하며 그런 음운혹뫼 짓고 신병 귀졸이 공허흐는지라.” 『엄시효문청형록』 낙선재본 16권, 29-30쪽.

29) “홀연 반공중으로서 음운이 스식호여 일광을 가리오며 뇌정병녀이 공중의 드레며 큰 항 갖흔 병박우설이 셋거 나리니 혹뫼 만만호여 지척을 분간치 못호고 무뫼 나리니 쇼리와 크기 동허만식 호미 격은 거손 사발만식 호며 사허 썩러져 문득 하나토 공황치 아나 다 송진을 향호여 군장 스졸의 디골을 터지오니...” 『엄시효문청형록』 낙선재본 17권, 8쪽.

30) “흐몰며 윤원슈의 쥬필부적과 제요축스며 제양의 피를 가족 부더의 만히 운전호여 진중의 가져왔는지라.” 『엄시효문청형록』 낙선재본 16권, 28-29쪽.

31) “풍백이 어디 잇는노 일흠 업스 즐풍뇌워 인간을 쇼요호디 풍백과 뇌시 맞치 아지 못호는 듯호여 이는 도로혀 하날을 업슈이 너기미라 죽직의 끌어바리지 아닌즉 텨테 그 알외여 죄틀 정히 흐리라 불연중시의 동남간으로 초츠 일건 형뫼이 니러나며 그런 음운 혹뫼 거드며 뇌정병녀이 나죽호여 바람이 혹뫼를 모라 바로 격진을 향호여...” 『엄시효문청형록』 낙선재본 17권, 9-10쪽.

32) 주지하다시피 군담의 도식성·유형성은 통속성과 흥미의 문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도식적 구조의 반복은 흥미를 제고할 수도, 역으로 반감시킬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세밀한 논의는 임성래(『조선후기의 대중소설』, 보고서, 2008, 204-253쪽)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3. 전작과의 비교를 통해 본 작중 군담의 특징

1) 전작 서사의 재서술을 통한 대결 장면의 확대와 변이

앞서 2장 1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작중 군담 ②, ③은 <윤하정삼문취록>에서 나타났던 내용을 재서술한 것이다.³³⁾ 두 작품 모두 동오국·서번국에 걸쳐 일어난 반란과, 그를 윤창린이 진압하면서 엄문에서부터 윤문으로 봉왕의 지위가 넘어가는 사건을 주요하게 다룬다. 반란의 주모지는 동오세자 엄표와 서번왕 견용이되, 그 배후에는 윤문 내부의 갈등 및 혼란에 관여하고 있었던 원홍 일당이 존재하는 등, 서사의 경계와 주요 등장인물 및 관계 구도에서는 두 작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두 작품에 공통되는 경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동오왕 엄백경이 천수를 다하여 사망한다. 엄표의 세자 직위를 폐하고 다른 어진 이를 후계로 삼으려는 내용의 유서(遺書)와 유표(遺表)를 남긴다.
- (2) 엄백진과 엄백현, 윤성린과 윤창린이 황명(皇命)을 받고 후사 처리를 위해 동오국을 방문한다. 왕위를 계승받지 못할 것을 짐작한 엄표가 봉암, 여방, 여숙, 여수정, 여혜정 등과 공모하여 이들을 해치고 왕위를 차지할 흥계를 꾸민다.
- (3) 엄백현과 윤창린이 엄백경의 유서·유표를 전달받아 황성으로 돌아간다. 봉암이 이들을 습격하여 유서·유표를 빼앗으려 하지만 윤창린의 활약으로 실패하고, 동오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원홍을 데려온다. 봉암과 원홍이 엄백진과 윤성린을 납치하여 북리산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 하지만, 하늘북리산 성황신과 엄표의 궁관(宮官)인 심이기의 도움으로 실패한다.
- (4) 윤창린과 엄백현이 황성에 도착하고, 엄표의 악행을 알게 된 황제는 들을

33) 선행 연구에서 김은일은 세 작품이 하나의 동일하면서도 방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며, 전작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열어두었던 또 다른 연작으로서의 가능성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증명되었다고 하였다(김은일(2021), 앞의 논문, 138쪽). 해당 서사는 이러한 세계관의 공유와 연작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대원수와 부원수로 삼아 동오국을 정벌하게 한다. 송군(宋軍)이 동오국 왕성에 도달하자 심이기, 여방, 여숙이 요약(妖藥)을 먹고 염표, 엄백진, 윤성린으로 둔갑하여 시간을 버는 사이, 염표 일당은 후문(後門)으로 도주한다. 윤창린이 셋의 둔갑을 눈치채고 심문(審問)하여 전후사를 낱알이 고하게 하고, 군대를 여럿으로 나누어 왕성을 점거하고 엄백진과 윤성린을 구출하는 한편 염표 일당을 추포(楸浦)하게 한다.

(5) 도주하던 염표의 군대가 추격군을 만나 와해된다. 염표는 사로잡히고 봉암 일당은 요술을 부려 도주한다. 호송 중에 염표가 자결한다.

(6) 봉암 일당이 서번왕 견용을 미인계로 미혹하여 서번국을 장악하고 중국(中國)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다.

(7) 윤창린과 엄백진이 이끄는 군대가 서번국 군대와 대치하여 일전(一戰)을 벌이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날 밤 서번군이 송군 진영을 기습하지만 이를 예측한 송군의 매복에 걸려 전멸한다. 견용은 전투 중에 사망하고, 봉암 일당은 사로잡혀 황성으로 압송된다.

하지만 경계가 거의 동일한 바와 별개로, 세부 서술을 살펴보면 작품에 따라 서술 비중이 확대·축소되거나, 구체적인 전개 방식 및 등장인물과 상호 관계구도에서 일정한 변개가 일어나기도 한다. 서사 분량을 비교해 보면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1)-(4)에 해당하는 내용이,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5)-(7)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그런데 (5)-(7)은 양측의 군사적 대결을 중심으로 하는 군담에 해당하거나, 그것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즉 <엄씨효문청행록>은 전작의 서사를 재서술하는 과정에서, 군담에 해당하는 분량이 한층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인물의 형상, 대결의 진행, 서술의 구체성이 훨씬 확장되고 있다. <윤하정삼문취록>의 군담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이 (5)-(7)에 해당하는 군담을 1회로 묶어 다룬 반면,³⁴⁾ 본고 2장에서는 ②, ③ 군담의 2회로 나누어 정리한 것

34) 서정현(2024), 앞의 논문, 179쪽 <표 2> 참조.

도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다.

작중 내용을 통해 이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자. 우선 경계 (5)에서 엄표의 군대가 송군(宋軍)의 추격대를 만나 외해되는 과정을 보면,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추격대가 엄표의 병사들을 설득하여 변변한 싸움 한번 없이 흩어지게 하는 데 그친다.³⁵⁾ 반면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송경과 석경학이라는 추격대를 이끄는 장수들을 내세우고, 이들이 엄표의 군대 및 요술을 쓰는 봉암과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군사적 대결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송경과 석경학의 용맹이 대단하여 엄표의 군대 중 누구도 이들의 일합(一合)조차 받아내지 못했다거나,³⁶⁾ 이에 맞서 봉암이 요술을 부리려 하지만 윤창린이 추격군에게 넘겨준 부적과 양의 피로 인해 파해(破解)당하는 등³⁷⁾의 내용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군담의 형식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다.

한편 (5)와 (6)에 해당하는, 엄표가 생금(生擒)당하는 외중에 봉암·원홍 일당이 겨우 도주하여 서번국과 결탁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 또한 자세하다. 이들이 수습한 수백 명의 동오국 군대가 봉암과 원홍의 지휘에 반발하여 달아나는 장면, 봉암과 원홍이 여수정·여혜정을 치장시켜 서번왕 견용을 미혹하고 서번국 내에서 높은 권세를 누리게 되는 장면 등의 중간과정이 차례로 서술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봉암 일당의 요사함과 비

35) “표의 군졸들이 무망지변을 만나 동귀 친척을 니별치 못하고 가는 심시 어저러워 눈물이 옷 앞플 적시더니 츠언을 듯고 일시의 창을 바리고 허여지니 께 디황실식혀 진퇴를 정치 못헝거늘 봉암 원홍이 형세 급헝를 보고 후거 중의 혜정 슈정을 거두쳐 일진 음풍을 인혀여 창쥬로 다라나니라.” 『윤하정삼문취록』 낙선재본 101권, 15-16쪽.

36) “이곳 송선봉 석장군이 다 냥장군이 다 적발환안의 호두일요 십척신장이라 풍신이 응위헝고 영위 기세혀여 능히 만인부당지용이 잇거늘 <중략> 이 무리 미쳐 정예치 못헝 군스로 한 무리 오합지졸이라 엇지 텃쥬 명장의 당당헝 신위와 영웅을 감당헝 리오 헝음업시 일합을 디적지 못헝고...”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16권, 28-29쪽.

37) 앞의 각주 28)과 30)의 인용문 참조.

윤리성이 강조되면서, 주인공-적대자 구도가 표상하는 선악(善惡) 대결의 당위 또한 부각된다.³⁸⁾

나아가 경계 (7), 즉 2장 1절에서 정리한 엄씨효문청행록-③ 군담에 해당하는 서번 군대와와의 대결 장면이 이르면, <윤하정삼문취록>에서 불과 4쪽 정도로 짧막하게 기술되었던³⁹⁾ 전쟁의 과정이 보다 복잡한 전개를 거치면서 훨씬 확장된 분량으로 서술된다.⁴⁰⁾ 양군이 먼저 일전(一戰)을 벌이지만 바로 승부가 나지 않고, 대신 서번군이 야습을 시도하다가 송군의 매복에 걸려 전멸당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과정의 서술에 있어서는 본작이 훨씬 구체적이다. 엄씨효문청행록-② 군담에서 엄표를 추격해 사로잡는 활약을 펼쳤던 송경과 석경학이 서번군의 장수들인 불여화, 탈탈고와 겨루어 백중세(伯仲勢)를 보이는 장면, 봉암이 요술을 부려 송군을 공격하자 윤창린이 풍백을 불러 역습하는 장면,⁴¹⁾ 봉암이 창승으로 변하는 등의 요술을 써서 송군을 염탐하는 장면,⁴²⁾ 전용

38) “그러나 고전소설의 군담에서 나타나는 전쟁은 해석된 서사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특정한 목적-영웅의 전쟁 수행-에 의해 도식화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즉 전쟁을 일으킨 죄과는 모두 적대자에게 있으므로 주인공은 오직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기만 하면 되며, 그런 점에서 결국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은 선악 대결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주인공과 적대자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악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독자들은 왜 주인공이 선인지, 또 왜 적대자가 악인지 의심하지 않는다. 대신 독자들은 선으로 규정된 주인공이 악으로 규정된 적대자를 어떻게 물리치는가, 즉 순수하게 승리의 과정에 몰두하며, 선악대결의 구도가 강화될 수록 몰입의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다.”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0, 22쪽.

39) <윤하정삼문취록> 낙선재본 101권 20-23쪽에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40) 해당 내용은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기준으로 16권 72쪽부터 80쪽, 17권 1쪽부터 25쪽까지 서술된다. 면당 글자수 차이에 따른 가감을 고려하더라도, 분량상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41) 앞의 각주 29)와 31)의 인용문 참조.

42) “봉암이 송진 기미를 낫낫치 슬퍼 그 조비호미 업스물 심히 깃거 헤오더 이چه야 격진 슈미룰 다 아라시니 송진 파호미 무어시 어려오미 이시리오 슈연이나 녀공등의 거체

의 군대가 송군 진영을 급습하지만 초인(草人)을 이용한 함정에 걸려 매복을 당하는 장면⁴³⁾ 등, 다양한 유형의 군사적 대결 장면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서술의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전개가 일부 달라지는 지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본작 군담 속 송경과 석경학의 등장 및 활약은 전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요소이다. 건용의 사인(死因)도 달라지고 있는데, 전작에서는 패배를 비관하여 자결한 반면, 본작에서는 송경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봉암 일당을 사로잡는 역할을 살펴보면, 전작에서는 윤창린과 엄백현이 각각 봉암·원홍과 수정·혜정을 사로잡는 것으로 서술하지만, 본작에서는 석경학이 원홍을, 엄백현이 봉암·수정·혜정을 사로잡는 것으로 바뀐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서번국의 후계를 결정할 때, 전작에서는 건용의 동생인 탈탈이라는 인물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반면, 본작에서는 송경·석경학과 무예를 겨루었던 장수 중 하나인 불여화가 왕실의 친족이었다는 설정을 내세워 후계를 결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계 (6)과 (7)을 중심으로 한 군담 강화는, 전작·원작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지점이기도 하다. 기실 본고에서 살핀 군담의 재서술을 제외하더라도, 〈엄씨효문청행록〉은 독자가 전작에 이어 본작을 차례로 읽는 상황, 즉 ‘이어읽기’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한 예로 봉암 일당을 본작에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지점에서, 작중 서술자는 이들의 지난 행적을 간략히 요약하면서도, 자세한 바는 <윤하정삼문취록>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⁴⁴⁾ 이는 전작을 접한 독자에

어디 잇는고 아라보야 금야 난병 중의 문져 구혀여 쇼루히미 업게 흐리라.”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17권, 17-18쪽.

43) “윤 엄 낭원쉬 장터의 놉히 누어 조금도 움죽이지 아니흐는지라 건용이 쾌히 나아드러 하나홀 참히니 브스석 쇼리 나며 머리 썩러지니 이긋 사름의 머리 아니오 한낫 초인이라 건용이 더경실식혀여 바야호로 계규의 속은 쥬 알고…”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17권, 21-22쪽.

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는 한편 반복 서술의 지루함을 피하게 하며, 전작을 접하지 못한 독자에게는 본작의 내용 이해를 돕는 한편으로 호기심을 유발하여 전작을 읽을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본작에서 군담을 중심으로 관련 서사를 재서술하는 것은 이러한 작품 간 상호관계성을 한층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전소설의 군담은 양측의 생사(生死)를 건 대결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극한을 보여주는 서사이며, 또한 그 갈등을 종결시키는 기능을 맡곤 한다. 이는 장편소설 속 군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서사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장편소설의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작중 군담은 주요 서사들의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의 기능을 맡는 경우가 많다.⁴⁵⁾ 하지만 그와 별개로 작중 군담은 종종 작중 내 핵심 갈등의 최종적인 해결소로서도 작동한다.⁴⁶⁾ <명주보월빙> 계열 세 작품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특히 본작에서는 전술한 ②, ③ 군담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해당 군담의 주요 적대자들인 봉암·원홍·수정·혜정은 본래 <윤하정삼문취록>의 핵심이 되는 가문 내 여러 혼사갈등에서 분란을 일으킨 인물들이다. 전작 <윤하정삼문취록>과 본작 모두에 등장하는 동오국 관련 군담은 이 ‘악인형 인물’들을 징벌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동오국으로 피신한 후 세자 엄

44) “원너 초요적(此妖賊)등은 다르니 아니라 디조의 스환하던 뉘라 <중략> 문취록의 희비흔 고로 녀녀의 허다 간음흔 스의와 녀숙 형테 숙질의 음흉 파촉흔 스연은 니의 기록지 아니하니라.” 『엄시효문정형록』 낙선재본 15권, 14-15쪽.

45) 송성욱은 대하소설(장편소설)의 단위담을 논의하면서 군담을 단위담보다 작은 단위인 독립단락(獨立段落)으로 정의하고, 서사적 휴지의 기능, 문제 해결의 기능, 음모의 심화 기능 등 매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송성욱(1997), 앞의 논문, 131-135쪽).

46) 서정현은 장편소설과 단편 영웅소설의 군담을 비교 검토하면서 장편소설의 군담은 단편 영웅소설처럼 사건·갈등의 해결에 이르는 종결의 기능을 함과 더불어, 유발과 지연, 대비와 같은 중간 매개로서의 기능 또한 맡는다고 하였다(서정현(2019), 앞의 논문, 244-251쪽).

표 및 오랑캐인 건용과 결탁하는 시점에서, 봉암 일당의 패륜과 악행이 한층 부각되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징벌의 당위가 보다 뚜렷해진다. 사족 출신 여성인물들인 수정과 혜정이 엄표와 건용의 후궁이 되거나 봉암·원홍과 사통하는 장면, 원홍과 봉암이 엄표와 건용을 꺾어 왕위를 찬탈하게 하거나 중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악행을 진압하는 주체는 다름아닌 윤문의 주요인물인 윤창린이다. 즉 윤·하·정 삼문 내부의 갈등이 가문 외부로 옮겨지면서, 군담이라는 생사를 건 대결 형태로 연장·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전작 <윤하정삼문취록>의 서사에서 군담이 지나치게 축약되면서, 그러한 갈등의 연장과 확대가 불완전한 형태로 종결되는 데 있다. 봉암 일당의 패륜과 악행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이를 윤문의 인물인 윤창린의 남다른 능력과 활약으로 압도함으로써 고조된 갈등을 극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뚜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작에서는 이 과정을 불과 1-2쪽, 300-400여자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간단히 마무리하고 만다. 하지만 이는 후속작 <엄씨효문청행록>의 재서술을 통해 보충·보완된다. 대결의 양상이 한층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적대자들의 위협적인 형상과 이조차도 압도하는 주인공 윤창린의 위엄이 뚜렷하다. 특히 전작에서 미진하였던 갈등의 극적 해소가 후속작의 재서술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윤하정삼문취록>의 창작이 다분히 전작과의 관계망과 독자의 연속적인 독서를 고려한 결과물임을 유추하게 한다.

물론 <윤하정삼문취록>에서 군담 서사를 간략화한 것은 단순히 현전하는 이본의 차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작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켜 추가 서술하거나, 윤창린과 엄백현의 공동 정벌임에도 불구하고 엄문이 아닌 윤문의 인물인 윤창린의 능력이 보다 부각되는 점, 건용의 최후와 봉암 일당을 사로잡는 역할, 서번국 후계자 등의 제반 요소들이

큰 변개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상의 사항들을 통해, 결국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전작의 동일 사건을 가져와 재서술하는 과정에서, 군담에 해당하는 부분에 큰 관심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하게 전작의 서사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대신, 세부 전개와 서술을 구체화하거나, 인물·사건의 부분적인 변개를 통해, 긴장감 있는 군사적 대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군담을 확장·변이시킨 것이다. 더불어 전작에서 미진했던 내용을 보완하면서 상호관계성을 한층 뚜렷이 하는 지점도 보인다.

2) 적대자형 인물 형상과 대결 방식의 변주를 통한 상호 차별화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의 군담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두 ‘연작’의 군담에 대해 인물의 형상, 대결 방식 등 제반 요소 등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요소를 등장시키거나, 서술 순서상 앞서 등장한 내용을 후속 군담에서 확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군담 상호간의 차별화를 꾀했음을 논의한 바 있다.⁴⁷⁾ 그런데 이러한 차별화는 후속작에 해당하는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결 장면을 거의 생략하고 군담으로서의 형식만 갖춘 ④ 군담을 제외하면, 본작 ①, ②, ③ 군담에서는 단순히 별개의 적대자를 등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의 조형 방식이나 군사적 대결의 양상 등에서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특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인물과 군사적 대결의 측면으로 나누어, 차례로 확인해 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인물의 형상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자. 이와 관련하여 작중에서 주목되는 사례는 ①과 ③ 군담에서 주인공과 대립 구도를 이루는 적대자형 인물들인 황후소와 건용이다. 이들은 군담 장면에서만 등장하는,

47) 서정현(2024), 앞의 논문, 196-199쪽.

작품 전체로 보면 단역(端役)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그 형상의 특이함으로 인해, 그들이 주도하는 군담의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결 구도를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우선 황후소의 경우, 2장 2절에서 전술한 것처럼 녹림의 산적 출신이자 당나라 시절 황소와 후궁 공손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18대손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중에서는 황후소의 배경 설명에 대해 낙선재본 기준으로 6쪽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며,⁴⁸⁾ 이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선조인 후궁 공손씨가 남긴 석함(石函)을 얻는 기연(奇緣)을 통해 반란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부각시킨다. 적발황면장군(赤髮黃面將軍)으로 불리는 독특한 용모, 조정에서 황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10만 명의 대군을 파견하는 점, 화희경과 대결을 벌일 때 거짓으로 패배를 위장했다고는 하나 일대일 대결에서 그를 수합 만에 쫓아내는 등의 무력을 과시하는 점 등, 군담 속 적대자로서 만만치 않은 능력과 위세를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고전소설 군담에서 적대자의 위상은 군담의 대결 구도를 보다 긴장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⁴⁹⁾ 그런데 황후소는 거창한 배경 설정만큼이나 실질적으로도 강력한 인물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인 화희경조차도 정면대결을 통한 일방적 우위를 점하거나 황후소를 압도하는 대신, 거짓 부상을 가장한 책략으로 함정에 빠뜨려 승리하는 ① 군담의 내용 또한 이 점을 증명한다. 이만한 능력을 가진 적대자는 비단 <엄씨효문청행록>만이 아니라 두 편의 전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신 두 편의 전작에서 황후소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점을 보이는 적대자

48)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41-46쪽에서 해당 내용을 서술한다.

49) “고전소설의 군담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영웅인 주인공과 지속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적대자 또한 나름대로 강력한 존재여야 한다. 적대자의 존재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거나 능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주인공과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싸움이 지속되기를 쉽지 않다. 즉 대결의 추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도환(2010), 앞의 논문, 39쪽.

형 인물로, <윤하정삼문취록>에서 등장하는 후초왕 황수인을 들 수 있다. 황수인은 송나라 건국 초기에 낙양절도사였다가 반란을 일으킨 황혁의 증손(曾孫)으로, 가문이 멸문하는 와중에 그의 처 남궁씨를 통해 남겨진 후손이라는 점, 산적으로 활동하다가 남궁씨가 남긴 유서를 통해 반역의 뜻을 품고 군사를 일으키는 점, 같은 황씨라는 점 등에서 황후소와 유사하다. 단 황후소가 황제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황소의 후손인 반면 황수인의 선조 황혁은 단순한 반역자에 불과하다.⁵⁰⁾ 나아가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정작 적대자 황수인이 주인공 정운기와 벌이는 대결 장면의 내용이 거의 생략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의 소략한 서술조차도 황수인을 제압하는 정운기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⁵¹⁾ 작중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작의 황수인은 본작의 황후소를 조형하는 데 원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적대자로서의 위세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서번국왕 건융의 경우, 2장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는 당당하고 용맹한 호걸로 묘사되면서도, 여색(女色)에 빠져 자신과 서번국의 신세를 망치는 용렬한 인물이다. 처음 등장할 때 건융은 여러 짐승들을 사냥하면서 산행(山行) 중인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⁵²⁾ 하지만 여수정·여혜정의 미색을 앞세운 원홍 일당과 대면한 이후로는 이들의 감언

50) 이 낙양절도사 황혁의 경우 역사서에서 그 출전을 찾기 어렵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설정한 가상의 인물로 보인다.

51) “황수인이 처음은 명의청의 년쇼빅편을 업슈이 너겨 교전호었더니 명의청의 신출귀몰하는 지죄 빅전빅승호여 넘진디척의 허다 신기묘산이 계갈무후의 녹출괴산의 명박호를 우이 너기고 칠중칠금의 등갑군을 못질너 살벌이 티과호를 가연호니 방불이 의논컨디 회음후의 구리산 십면디복의 영웅이 기세호와 장즈방의 계명산 추야월의 옥쇼일곡으로 강동 팔천 즈데를 물니치고 장중의 잠든 피왕의 꿈 가온디 녀시 다라 나게 호던 신무지략의 방불호니 슈삼즈 교전의 적슈를 버히며 싱금고고 스줄을 항복 바드며 산치를 못지르고...” <윤하정삼문취록> 낙선재본 97권, 9-10쪽.

52) “건융이 검은 비단 옷시 금투고를 쓰고 오식 강궁을 츠고 늑흔 산의 올라 산행호며 쇼줄을 지휘호여 빅원 흑공과 원학 비록을 추심호더니...” 『엄시효문경형록』 낙선재본 16권, 40-41쪽.

이설에 거듭 속아넘어가면서 그릇된 판단을 하는 용렬함이 부각된다. 정무(政務)의 전권을 봉암과 원홍에게 넘기고는 여수정·여혜정을 후궁으로 삼아 환락하는 데 몰두한다든가, 심복으로 중용하는 봉암과 원홍이 기실은 여수정 및 여혜정과 사통하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그의 후궁이 된 여수정과 여혜정이 그의 뒷수룩한 수염과 검은 얼굴빛, 푸른 눈 등 중국인과 다른 건용의 용모를 흉하고 더럽게 여기는 점⁵³⁾ 등은, 이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건용의 형상은 위에서 본 황후소의 위상과는 반대에 가깝다. 이민족에 대해 ‘흉하고 어리석다’고 인식하는 편견을 구체화하는 한편으로, 실질적으로도 봉암 일당의 괴뢰(傀儡)가 되어 이용당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경 내·외의 중국인과 이민족이 서로 결탁·합세하여 중원을 넘보는 내용이 기술되는 점, 그리고 건용의 어리석음이 부각되는 만큼 봉암 일당의 악행과 음행(淫行) 또한 두드러지면서 군담 특유의 선악 구도를 강화시키는 점 등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전작 <윤하정삼문취록>을 제외하면 본작과 두 편의 전작에 속하는 다른 군담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양상이다. 특히 본작의 경우 전작보다 건용과 관련한 서사를 풍부하게 기술하면서, 기존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용의 용렬함과 그를 이용하여 중국을 넘보는 봉암 일당의 간악함을 강조하는 서술을 보여준다.

이제 두 번째로, 작중 군사적 대결의 유형과 서술 방식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고전소설에서 한 작품 혹은 연작이나 그에 준하는

53) “건용의 언지 되미 부귀와 총이 낫브미 아니로더 건용의 창창흔 나룻과 검은 낫치 프른 눈망울의 흥영흔 거동이 엇지 전일 제집 말지 비복인들 이런 흥코 더러운 거시 이시리오 님네 날마다 분면을 다스리고 금슈 단장을 치례하여 웃는 빗과 낭낭흔 말 쇼리로 건용의 은총을 닛고나 맛츄니 중국 인물을 스모흐미 김흔 고로…”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16권, 46-47쪽.

여러 작품들 안에서 군담을 반복 서술할 경우, 어느 정도의 유형화는 피하기 어렵다. 앞서 2장 3절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세부 전개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대결 유형을 개략적으로 정리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일 만한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과 별개로 본작을 포함한 세 편의 작품들에서는 도합 19회의 군담 중 군사적 대결을 구체화하는 경우, 다른 군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개성적인 요소들을 저마다 보여주곤 한다.

우선 주목할 것은 엄씨효문청행록-① 군담이다. 전술한 것처럼 해당 군담에서는 주인공 화희경이 황후소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거짓으로 패퇴하고 중상을 입은 것처럼 위장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런데 본작은 물론이요 두 편의 전작에서도 주인공이 적대자와의 정면대결, 특히 무술전과 같은 유형의 대결에서 열세에 처하는 장면을 찾기 쉽지 않다. 또한 작중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화희경이 황후소에게 쫓겨 달아나다 화살을 맞고 낙마(落馬)하는 장면을 우선 묘사한 뒤, 사실은 그것이 사전에 준비된 책략이었음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뒤에 밝히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⁵⁴⁾ 즉 서술 시점을 조정하면서 정보를 제한하여 독자의 긴장감을 높이고, 일방적인 주인공의 승리가 아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양자 간의 대결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화희경이 양혈(羊血) 주머니를 이용해 부상당한 척 연기하거나, 황후소가 아군 병졸을 민간 부녀자로 여장(女裝)시켜 송군 진영을 염탐하는 책략을 쓰는 내용 또한 본작 및 두 편의 전작에 속한 다른 군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엄씨효문청행록-②와 ③ 군담을 살펴보면, 무술전과 관련한 주인공의 개인 무력이 아닌 병법전·도술전 방면에서의 능력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무술전에서의 활약을 주인공 기문과 별개의 인물들에게 맡기는

54) 낙산재본 기준 6권 13쪽에서 부상과 낙마 장면을 기술한 뒤, 16쪽에서 이를 재서술하면서 진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상이 나타난다. 선행 연구에서 논의하였듯이 두 편의 전작은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문무(文武)를 겸전하면서 직접 전장에 나서게 함으로써, 무인(武人)의 형상과 능력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⁵⁵⁾ 군사적 대결 장면의 구체적인 서술이 이루어진 경우를 기준으로, 주요 가문 출신의 주인공들 가운데 군담에 참여하면서도 무인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는 <명주보월빙>의 윤희천, 그리고 그의 장자(長子)이며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윤하정삼문취록>과 본작 군담에서 등장하는 윤창린 정도이다. 본작 기준으로 볼 때 ④ 군담의 주역인 엄창은 군사적 활약상이 생략되어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① 군담의 주역인 화희경은 황후소와 무예를 겨루거나 대도(大刀)와 죽절편(竹節鞭)을 휘두르며 전장에 참여하는 등⁵⁶⁾ 무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명주보월빙>의 군담에서 윤창린의 부친이었던 윤희천은 무인의 형상을 지닌 정문(鄭門)의 정세홍과 함께 출전하면서 군담 속 무술전의 대결 방식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창린의 군담을 서술할 때는 무술전을 담당할 만한 인물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작의 ②와 ③ 군담에서는 무인의 기질을 보여주지 않는 윤창린을 대신하여, 송군의 장수들인 송경과 석경학을 내세워, 전작에서 생략되었던 무술전 유형의 대결 장면을 풍부하게 전개한다. ② 군담에서 엄표를 추격하여 사로잡는 공적을 세우거나, ③ 군담에서 서번국의 장수들과 무술 대결을 펼치는 등의 활약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엄씨효문청행록>을 포함한 세 작품의 개별 군담들이 일정한 도식에 따라 유형화되면서도, 인물의 성격이나 관계구도, 대결의 유

55) 서정현(2024), 앞의 논문, 204-207쪽.

56) “중군 장터의 화도독이 기갑을 정히 하고 집극상마하여 좌슈의 디도를 들고 우슈의 죽절편을 들어 삼군을 지휘하니 해불 아리 영풍이 동인호는지라.”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6권, 24-25쪽.

형과 서술 방식 등에서 정형성을 탈피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군담의 유형화에 따른 흥미의 반감을 탈피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로 보인다. 전작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여러 편의 군담을 기술하면서 군사적 대결을 생략하는 장면이 종종 나타난다. 심지어 내용이 너무 번잡하거나 지루하다고 보아 일부러 생략한다고 서술자가 직접 진술하기도 한다.⁵⁷⁾ 이를 감안하면 각각의 군담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들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이 반복적인 내용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독서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서술상의 전략일 것이다. 나아가 두 작품 간의 서사적 지속성 및 ‘전작과 연계하여 읽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로 추정된다.⁵⁸⁾

그런데 두 작품에서 나타났던 군담 간 차별화의 기법이 <엄씨효문청행록>에서도 보이는 점, 아울러 세 작품을 합치면 무려 19회에 이르는 군담을 서로 비교할 경우에도 이러한 차별화가 유지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즉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 서술에는, 전작 두 편과의 연결고리 및 독자의 ‘세 작품 이어읽기를 상정한 작자의 의도가 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결 장면의 유무에 나타난 일문(一門) 중심 서술의 약화

<엄씨효문청행록>은 그 명칭부터 ‘엄문’을 전면내세우고 있으며, ‘효문(孝門)’과 ‘청행(淸行)’이란 표현 또한 계자(繼子)인 엄창과 친자(親子)인 엄영을 각각 ‘효문공’과 ‘청행공’으로 칭하는 데서 비롯한다.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 또한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바와 같이 두 형제의 모친인 최부인이 계자 엄창을 내치고 친자 엄영을 종통으로 세우려는 데

57) “황슈인을 버혀 여당을 항복받던 스의 갓초 괴이함이 만흐나 전이 너모 지리흐물 썩리고 보느니 번잡히 너길가 흐여 디기만 초략하고 괴이흐 설화는 다 썩히미 되니 가탄이러라.” 『윤하정삼문취록』 낙선재본 97권, 11쪽.

58) 서정현(2024), 앞의 논문, 200-203쪽.

핵심을 둔다. 하지만 엄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별개로, 본작의 군담에서는 엄문과 인척관계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가문에 소속한 인물들을 주요하게 내세우는 모순적인 양상이 보인다. 이는 우선 <엄씨효문청행록> 속 4회의 군담 가운데 ④ 군담의 장면서술이 생략된 지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장 1절에서 확인하였듯이, ④ 군담은 군사적 대결을 다루는 장면서술이 생략되어 있다. 심지어 주인공-적대자의 구도를 비롯한 제반 측면을 확인해 보면, 처음부터 작자가 이 군담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정황 또한 엿보인다. ④ 군담에서 내세우는 ‘안남국’은 전작 <명주보월빙>의 첫 군담에서 등장하였던 ‘운남국’과 그 명칭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고전소설에서 ‘운남’과 ‘안남’은 종종 혼동되어 쓰이긴 하되, 대체로 현재의 베트남 지역에 해당하는 남방 국가를 가리킨다.⁵⁹⁾ 두 작품의 작자가 역사적 현실 속 ‘안남(베트남)’의 표상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였는지는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작의 ‘안남국’이 전작의 ‘운남국’을 원안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만리 밖 남蠻(南蠻) 땅으로 나아갔다는 묘사, 주인공이 국왕의 항복을 받고 교화(教化)를 펼쳐 군민(君民)을 심복하게 하는 전개 등에서 두 군담이 서로 비슷한 한편으로, 세 작품의 다른 군담에서는 보이지 않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주보월빙>에서 운남국 정벌을 상당한 공을 들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와 달리,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대결 장면을 생략하고 전후사(前後事)를 간략히 기술하는데 그친다.

이처럼 ④ 군담이 작중 타 군담에 비해 비교적 소홀하게 서술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도식적인 형태로 군담이 반복되면서 독자

59) 둘 가운데 ‘안남’이 정확하겠지만, 베트남과 인접해 있는 운남성(雲南省) 일대의 지명과 혼동되면서 함께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국문장판소설 <소현성록>에서는 ‘운남국’이, <완월회맹연>에서는 ‘안남국’이 등장한다.

의 흥미가 떨어지는 점, 특히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현저해지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군담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유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⁶⁰⁾ 하지만 문제는 본작의 경우 이러한 서술의 간략화가, 엄문 출신의 인물이 주역을 맡는 유일한 군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① 군담의 주인공인 화희경, ②와 ③ 군담의 주인공인 윤창린은 모두 사위로서 엄문의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이며 직계가 아니다. 물론 ②, ③ 군담의 경우 엄문의 1대이자 부친 세대에 해당하는 엄백현이 부원수로서 윤창린과 함께 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군담에서 실질적이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비단 대결 장면의 서술 유무만이 아니라, 군담의 횟수 및 서술 분량에서도 ①, ②, ③ 군담과 ④ 군담은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윤창린의 활약을 주요하게 내세우는 ②, ③ 군담의 전개 및 인물 구도를 살펴보면, 엄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엄표의 반란 사건은 기실 ② 군담에서 엄표의 생포와 자결로 마무리된다. ③ 군담의 적대자 측 인물 들인 견용과 봉암 일당은 엄문과 큰 관련이 없거나, 혹은 윤창린의 기문인 윤문에서 복잡다단한 갈등을 일으켰던 인물군이다. 따라서 중심기문의 이 동으로 따져본다면 전작 <윤하정삼문취록>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술에서는 앞서 3장 1절에서 확인하였 듯이 오히려 본작이 훨씬 자세하다.

기실 서술의 간략화와 별개로, ④ 군담의 작중 서사 내적인 의미는 알지 않는다. 동오국에서의 분란으로 인해 엄문이 왕작(王爵)을 상실하였다가, 엄창의 입공(入功)을 계기로 그에 준하는 공후(公侯)의 지위를 되찾아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엄문의 직계가 주도하는 유일한 군담인 만

60) 앞의 각주 57)에서 제시한 전작 <윤하정삼문취록> 속 서술자의 발언이 그렇거니와, <원월회맹연>, <유씨삼대록> 등 군담을 다수 삽입하는 국문장편소설에서도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군담이 간략화되는 사례가 여럿 보인다.

큼, 업창의 뛰어난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는 해당 군담의 서술을 간략화하고 있는데, 이는 업문의 입공과 번창 문제를 우선시하여 서술하고자 하였다면 드러나기 어려운 양상이다.

이상의 지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업문이라는 일문(一門)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면서도, 그 이면에는 단일 가문을 넘어서서 복수 가문의 서사를 폭넓게 형상화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 점은 본작이 전작의 배경과 인물, 사건들을 다수 수용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⁶¹⁾ 이미 일정하게 짐작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담의 배치와 장면서술의 문제를 통해, 업문을 우선시하여 서술하려는 태도가 약화되어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전작 〈명주보월빙〉으로부터 시작되는 세 작품 상호간의 연결성과, 독자의 ‘이 어릿기’를 상징하는 작자의 의도 또한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엄씨효문청행록 ② 군담에서 문제의 중심이 되는 왕작의 계승권 문제가, 비단 직계만이 아닌 옹서(翁嬭)관계에 있는 인척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작중에서 업표는 부친 업백경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경우, 사위인 화희경 혹은 윤창린을 후계로 삼을 것이라고 추측한다.⁶²⁾ 후일 윤창린이 업표의 반란을 진압한 후, 황실에서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으로 고인이 된 업백경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동오왕의 작위를 내린다.⁶³⁾ 즉 작중에서는 가문의 직계

61) 최길용(1984), 앞의 논문, 83-84쪽.

62) “선왕이 남종의 유표를 끼쳐 거시다 허더니 이 가온더 반드시 묘택이 이시리라 부왕과 모회 미양 창테와 두 미부를 칭이호시고 날은 불이호시던 거시니 이 가온더 무슨 스단이 이실 줄 알리오.”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15권, 45쪽.

63) “더원슈 윤창린이 공이 만코 영웅이 기세하여 충년이 썩혀난지라 이제 오국 왕위를 타인의게 도라보니른 선왕 업모의 혼탁이 불안홀 거시니 맛당이 그 스랑허던 스희로 뼈 위를 니으른 덧덧흔 상신가 호느니 이의 특명으로 창년으로 정오왕을 봉하고 농포 옥디를 보느니니…”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16권, 52-53쪽.

에 비하면 순위가 밀릴지언정, 외인(外人)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인척의 계승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인 시선을 보낸다.

본작에서 직계인물이 등장하는 군담의 장면서술이 생략되고 직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활약상이 구체화되는 것 또한 위의 관점과 결부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일문 중심의 서술의식이 약화되면서 엄문과 관련된 타문 인물들의 활약상도 함께 주목하거나, 혹은 사위와 같은 인척관계의 인물들 또한 가문 내 서사에서 다소 동떨어진 외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가문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함께 내세우려는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군담 속 활약상이 돋보이는 화희경과 윤창린은 엄문의 여성들인 엄난혜·엄월혜와의 부부관계를 통해 엄문과 결속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여계(女系)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려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작이 친자와 계자 사이의 계후갈등에서 최종적으로는 계자의 승리 및 가문 계승을 다루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혈통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가문 내·외를 아우르는 관계망 자체를 중시하고자 하는 작자의식의 발로를 추정할 수도 있다. 단 이는 군담만이 아닌 작품 전반을 조망하면서 더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논의이므로, 본고의 방향성 하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몇몇 가능성만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4. 작중 군담의 소설사적 의미

단편 영웅소설·군담소설과는 달리 군담이 서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맡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바와 별개로, 국문장편소설의 군담은 작품에 따라 종중 서술 분량과 기법의 활용, 다양한 소재와 전고의 활용 등에서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을 보여준다. ‘삶의 총체성’을 다루는 것이 방대한 분량과 그에 걸맞는 복잡다단한 내용을 자랑하는 국문장편소설의 특징이다.⁶⁴⁾ 그

리하여 전체 서사에 비하면 비교적 부수적인 위치에 있는 군담조차도 대부분의 영웅소설·군담소설을 능가하는 세세함을 보여주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문장편소설 속 군담의 구체화를 이끈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자유로운 허구화가 가능한 서사적 공간”⁶⁵⁾인 ‘중국의 역사적 과거’를 배경으로 삼아,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당대 작·독자들의 현실 속 이야기를 다룬다.⁶⁶⁾ 그러면서도 가문·집안 내부라는 친숙한 공간의 서술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문 밖으로 뻗어나가기도 한다. 국문장편소설, 그 중에서도 본작에서 다룬 <엄씨효문청행록>과 같은 낙선재본 소설들의 주요 향유층이었던 여성들에게 외유(外遊)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만큼, 소설 안에서 벌어지는 남성 혹은 여성 인물들의 가문 밖으로의 진출은 평소 품고 있었던 욕구의 표출이자 대리만족이기도 했을 것이다.⁶⁷⁾ 국문장편소설에서 군담과 같은 주인공의 출정(出征), 혹은 유람과 유배, 타지 부임, 도피 등의 ‘가문 외부’로의 공간 이동은 가문 내부라는 일상적·현실적인 공간과 사건의 지속성을 깨고, 작중 전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며 활력을 불어넣었던 셈이다.⁶⁸⁾

그런데 국문장편소설 속 군담 서술의 이러한 당위를 고려하더라도, <엄

64) 선행 연구에서 정길수는 장편소설의 개념을 ‘소설 속의 주인공과 주인공이 처한 시대를 비교적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제시한 바 있다(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0-12쪽).

65) 이지영, 「조선시대 한글장편소설에 구현된 가상세계로서의 역사」,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127쪽.

66) 이지영(2020), 위 논문, 126-127쪽.

67) 선행 연구에서 임치균은 낙선재본 고전소설의 향유가 ‘외유(外遊)’와 같은 유람의 간접 체험과 연관된다고 하면서, <유이양문록>, <청백운>의 사례를 들어 논한 바 있다(임치균, 「낙선재본 고전소설의 존재 형태와 독서 문화」, 『장서각』 49,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25-27쪽).

68) 서정현(2019), 앞의 논문, 270쪽.

씨효문청행록>을 비롯한 이른바 <명주보월빙> 연작으로 묶이는 세 작품의 군담 서술은 상당히 특이하다. 일단 해당 작품군은 도합 19회나 되는 군담을 기술하고 있다. 물론 단일 작품으로서는 해당 작품군의 분량을 능가하는 <완월회맹연>에서 총 180권 가운데 10여 권의 분량을 군담 서술에 할애한 바를 고려한다면,⁶⁹⁾ 이러한 작중 군담 서술의 확장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 및 본고 2장과 3장에서 확인하였듯이, 각각의 군담이 서로 차별화되는 요소를 상정하면서 서술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다. 대결 장면의 구체적인 서술이 부족하거나 생략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창작 과정에서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 없이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기 힘들다.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것처럼,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의 군담은 연작의 연속성과 개별 군담의 독자성을 함께 부각시키고 있다.⁷⁰⁾ 그리하여 “장편소설 속 군담의 서술 기법을 망라하되, 그 구체적 활용에서 현충 발전적이고 세련된 단계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편소설의 기존 성과를 집대성하는 높은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⁷¹⁾ 그런데 본고의 논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두 작품만이 아니라 <엄씨효문청행록>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 또한 두 편의 전작에서 보여주던 바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작의 삼문(三門)과 별개의 가문을 다루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보인 작품에서도 이처럼 독자의 ‘이어읽기’를 염두에 두는 창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두 전작과 <엄씨효문청행록>의 작자(군)이 동일할지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군담 서술에 있어서는 전작·원작의 창작 의

69) 서정현(2019), 앞의 논문, 108쪽.

70) 서정현(2024), 앞의 논문, 214쪽.

71) 서정현(2024), 위 논문, 214쪽.

도와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동일한 세계관 하에서 다른 개별작으로서의 확장을 보여준 〈엄씨효문청행록〉이,⁷²⁾ 단순히 연작 혹은 파생작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높은 완성도를 보이거나 독자의 몰입을 꾸준히 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독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닌 내용과 주제의식을 확인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도식화된 유형 서사의 반복으로부터 오는 흥미의 반감을 피하고 새롭게 집중할 동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엄씨효문청행록〉을 포함한 〈명주보월빙〉 이하 세 작품은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문학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장편서사체인 동시에, 1700년대 말 내지 1800년대 초의 조선조 소설문단의 창작적 역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작”⁷³⁾이라는 기존의 평가는 다소의 과장이 섞였다 할 수는 있어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해당 작품군에서 군담의 서술이 독자의 독서 경향까지 고려하면서 반대하면서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당대의 소설 향유에서 군담이 갖는 비중이나 가치가 상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상술한 것처럼 〈완월회맹연〉에서도 군담의 비중이 적잖은 점까지 고려하면, 여성들을 포함한 당대의 소설 독자들에게 군담은 충분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군담의 매력은 독자에 따라서, 혹은 작중 배치와 서술 방식에 따라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요소였다는 점도 확인된다. 〈엄씨효문청행록〉을 포함하여 창작자조차도 작중 군담의 반복을 피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던 점, 그러고도 결국에는 몇몇 군담의 경우 축약하거나 군사적 대결 장면을 생략해 버리는 점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작중 서술

72) “이상 〈명주보월빙〉 연작은 방대한 세계관 속에 기획된 작품으로서 〈명주〉에서 집중해 놓은 서사를 〈운하정〉에서 다양하게 확산시키며 또 다른 연작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둔 작품이며, 그 가능성이 〈엄씨〉로 증명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은일(2021), 앞의 논문, 138쪽.

73) 최길용(2021), 앞의 책, 1권 5쪽.

에서 직접 ‘번잡하고 지루하다’⁷⁴⁾고 표현한다든가, ④ 군담처럼 작중 후반에 삽입된 경우 장면의 축약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바가 그렇다. 많은 국문 장편소설에서 군담은 작중의 핵심 갈등과 밀착되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흥미소로 적극 활용된다. 하지만 전쟁 소재라는 점에서 대체로 가문 내부에 집중되곤 하는 작품의 주요 서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따라서 군담을 통한 독자의 흥미 제고 또한 종종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단 그러한 한계점과 별개로, 앞서 3장 1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본작이 군담을 중심으로 전작의 내용을 재서술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군담은 주인공과 적대자 양측의 생사를 건 대결을 통해 갈등의 고조 및 극적 해결을 불러오는 장치이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윤창린-봉암 일당 사이에 벌어지는 군담을 지나칠 만큼 축약하였기에 이 갈등 해결의 단계에서 미진한 바가 있었다.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이를 보완한 것은 비단 두 작품 사이의 긴밀한 관계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편소설의 군담이 종종 주변부의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의 핵심 내용과 밀착되어 존재했음을 드러낸다. 자칫하면 지루한 서사의 반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의 기존 내용을 재서술한 점, 아울러 그 작업이 군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은, 적어도 해당 부분의 서술에 있어서는 창작자가 군담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본고의 논의 결과 <엄씨효문청행록>은 <명주보월빙> 및 <윤하정삼문취록>과 연작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묶는 편이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물론 본작에서는 엄문으로 중심가문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전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원작’과 ‘파생작’의 명확한 개념 또한 개별 연구자의 시각 및 실제 작품의 존재양상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이 작품을 ‘중심가문의 이동이 있는

74) 앞의 각주 57) 참조.

연작' 혹은 '방계형 연작' 등으로 규정한 바⁷⁵⁾에 덧붙여 본고에서 확인한 바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엄씨효문청행록>은 그 원작·전작들에 대해 '파생작'보다는 '연작'에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군담별 독자성을 강조하거나 전작에서 소략했던 군담 서술을 보완함으로써 주요 갈등의 미진한 바를 부여하는 등 전작과의 상호관계성 및 독자의 '이어읽기'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확인되는 점, 업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군담에서는 전작의 주인공을 포함하여 인척관계로 얽혀 있는 타문(他門) 인물들의 활약상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일문 중심의 서술이 약화되는 점 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 <엄씨효문청행록>의 군담에 주목하여, 그 존재양상과 특징을 전작·원작에 해당하는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과의 비교 하에서 고찰한 후 문학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전작의 서사를 재서술하는 과정에서 군담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장·변이시켰다는 점, 본작 4회에 전작까지 포함하면 도합 19회에 달하는 군담이 적대자형 인물 형상과 대결 방식 등의 변주를 통해 상호간 차별화를 이루었다는 점, 업문 직계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약상은 축약하거나 생략하는 반면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활약상은 구체화하면서 일문(一門) 중심의 서술이 약화된 점 등을 차례로 논의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엄씨효문청행록>을 포함한 <명주보월빙> 이하 세 작품의 군담은 세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어읽기'와 군담 특유의 흥미 제고를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문

75) 앞의 각주 8) 참조.

장편소설의 향유에서 군담은 충분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었지만, 독자의 기호와 창작 방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거나 흥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음을 유추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중 군담에서 세 작품 간의 상호관계성 및 이어읽기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엿보이는 점과 일문 중심의 서술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씨효문청행록>은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을 잇는 삼부작 연작소설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작중 군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탐색해야 할 과제들을 미처 다루지 못한 바가 있다. 특히 군담에서는 가문 직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서사가 직계 인물들의 서사보다 부각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넓게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명주보월빙」 낙선재 소장본.
「윤하정삼문취록」 낙선재 소장본.
「엄시효문청행록」 낙선재 소장본.
「엄시효문청행록」 고려대학교 소장본.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1-12, 서울대 출판부, 1993.
최길용 교주, 『교감본 명주보월빙』 1-5, 학교방, 2014.
최길용 교주, 『교감본 윤하정삼문취록』 1-5, 학교방, 2015.
최길용 교주, 『교감본 엄시효문청행록』 1-2, 학교방, 2021.
- 고은인, 「한글장편소설의 이동 서사와 애착 관계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5, 국문학회, 2022, 183-224쪽.
-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0, 1-219쪽.
- 김서운,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275-309쪽.
- 김은일,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방식」,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111-143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과 <엄씨효문청행록>에 나타난 동오국 형상화의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57, 한국고소설학회, 2024, 109-146쪽.
- 박영희, 「<엄씨효문청행록(嚴氏孝門淸行錄)>에 나타난 갈등양상(葛藤樣相)과 의미」, 『어문연구』 2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134-149쪽.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1-499쪽.
- 서정현,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 -<창선감의록>·<소현성록>·<완월회맹연>·<몽옥쌍봉연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3, 한민족어문학회, 2019, 225-260쪽.
- _____, 「조선 후기 장편소설 속 군담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9, 1-329쪽.
- _____,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 연작의 군담 연구」, 『우리말글』 101, 우리말글학회, 2024, 173-218쪽.
- 유인선, 「<양문충의록(楊門忠義錄)>에 나타난 가문회복 방식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203-228쪽.
- _____,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21, 1-231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의 용(龍) 서사 양상과 의미」, 『동서인문학』 66,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4, 221-251쪽.
- 유현주, 「<엄씨효문청행록>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9, 1-110쪽.
- 이민주, 「한글장편소설의 파생작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23, 1-171쪽.
- 이지영, 「조선시대 한글장편소설에 구현된 가상세계로서의 역사」,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111-137쪽.
- _____, 「낙선재본 고전소설에 나타난 허구적 이야기세계의 서사전통」, 『장서각』 49,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36-61쪽.
- 이현주, 「〈완월회맹연〉의 역사수용 특징과 그 의미 : 토목지변(土木之變)과 탈문지변(奪門之變)을 중심으로」,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2010, 197-226쪽.
- _____,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한민족어문학회, 2012, 451-474쪽.
- 이후남, 「요괴 서사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명주보월빙> 3부작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285-297쪽.
- 임치균, 「낙선재본 고전소설의 존재 형태와 독서 문화」, 『장서각』 49,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6-35쪽.
- 조광국, 「엄씨효문청행록(嚴氏孝門淸行錄)에 구현된 별열가부장제(閼閼家父長制)」,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227-253쪽.
- _____, 「별열소설(閼閼小說)의 효(孝) 구현(具現) 양상(樣相)에 대한 연구 - 별열소설(閼閼小說) 전개에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柳孝公善行錄)」, 「엄씨효문청행록(嚴氏孝門淸行錄)」,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35-161쪽.
- 조혜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양녀(養女) 화소의 양상과 의미 - 『양현문지절기』와 『엄씨효문청행록』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60,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77-100쪽.
- 탁원정, 「연작형 국문장편소설의 공간 구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131-163쪽.
-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1984, 1-273쪽.
- _____,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89, 1-228쪽.
- _____, 「<명주보월빙> 연작-<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엄씨효문청행록>」, 우쾌제 외,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1131-1185쪽.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 Tales(軍談) of
〈Umssihyomuncheonghaengrok〉
- Focusing on Comparisons with 〈Myeongjubowolbing〉
and 〈Yunhajeongsammunchwirok〉

Seo, Jeong-hyeon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military tales”(軍談) in the Korean novel 〈Umssihyomuncheonghaengrok〉, and compared their existence and characteristics with the previous and original works, 〈Yunhajeongsammunchwirok〉 and 〈Yunhajeongsammunchwirok〉, and then attempted to derive their literary historical significance. The military tales in 〈Umssihyomuncheonghaengrok〉 took up a considerable amount of space, two volumes based on the 30-volume Naksunjae(樂善齋) version, and not only showed uniqueness that distinguished them from other works, but also strongly revealed continuity with the previous work.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reative process of the work took into account the readers’ intention to read the three works consecutively, and therefore it was deemed necessary to deeply examine the issue of the description of the military tales.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the military tales between the works, it can be confirmed that in the process of retelling the narrative of the previous work, 〈Umssihyomuncheonghaengrok〉 expanded and mutated the content corresponding to the military tale, that the military tales, which total 19 times including the previous work, we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through variations in the form of antagonistic characters and the method of confrontation, and that while the activities of th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the direct line of the Um clan were abbreviated or omitted, the activities of the characters of the other clan (他門) who are relatives were specified, weakening the narrative centered

on the single clan(一門).

Based on the above poin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ilitary tales of the three works including <Umssihyomuncheonghaengrok> and <Yunhajeongsammunchwirok> were creat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for the readers' 'continued reading' of the three works and the heightened interest unique to military tales. In addition, it was inferred that while military tales can be sufficiently attractive stories in the enjoyment of Korean long novels, they can also be factors that divide opinions or reduce interest depending on the reader's taste and creative style. Finally, considering that the military tales in the work show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interrelationship and continuous reading among the three works and the weakening of the narrative centered on one sentence, it was revealed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define <Umssihyomuncheonghaengrok> as a trilogy of novels that follows <Yunhajeongsammunchwirok> and <Yunhajeongsammunchwirok>.

Key Words <Umssihyomuncheonghaengrok>, military tales(軍談), <Myeongjubo-wolbing>·<Yunhajeongsammunchwirok>, serial reading, family

논문투고일: 2025.3.21.

심사완료일: 2025.5.9.

게재확정일: 2025.5.19.